

지스트, 미래가치 창출 연구기관 '도약'

설립 30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30년 저력을 30년 미래로" 결의 7915명 인재양성 첨단과학 선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최근 광주 지스트 오희관 다산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철 지스트 총장, 학생·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스트는 이 자리에서 "향후 30년 후인 2053년에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세계대학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교육·연구·성과확산 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3만 명 양성, 인류 난제 해결의 해법을 제공하는 글로벌 석학 30명 배출,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을 'GIST 비전 2053'의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다.

임 총장은 기념사에서 "지스트가 설립 30년 만에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 중심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며 "30년 저력을 30년 미래로 리는



임기철 지스트 총장이 최근 지스트 오희관에서 열린 지스트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스트 제공>

결의를 다지며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한편 지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1993년 설립된 지스트는 19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박사 1838명, 석사 4910명, 학사 1167명 등 791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 인공지

능(AI)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 글로벌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발한 국제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을 토대로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11개 과제 26억원 지원받아 기업과 공동 연구 수행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1개 과제가 선정돼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광주대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행할 사업 과제는 대학의 보유 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하는 '산학연 Collabo R&D사업' 9개 과제와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정할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지역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2개 과제다.

산학연 Collabo R&D사업으로는 아이스플랜트를 활용한 대사중후군(비만/중성지방)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제품화(건강기능식품학과 이효정 교수)를 비롯해 ▲다구간/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타이어 금형 및 가류 시스템 개발(융합기계공학과 백경운 교수), ▲메타버스 공간에서 로봇을 활용한 협동 학습용 프로그래밍 플랫폼 개발(AI소프트웨어학과 김광현 교수)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AI자동차학과 박창규 교수가 연구에

나설 ▲AI기반 홍수관리시스템 개발 ▲철도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레일 상태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 ▲딥러닝 기반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결합타지 모듈 개발 등 3개 과제와 ▲국산화 하이브리드 회전형 광전선호 전달장치(보건의정학부 윤현재 교수) ▲딥러닝 기반 입체영상을 활용한 AI-스마트 가든 통합관리시스템 개발(AI자동차학과 방결원 교수), ▲가입자망 선로 monitoring 기능을 포함한 집적형 8채널 Remote Node (mRN 8) 모듈 개발(전기공학과 홍경진 교수) 과제도 함께 선정됐다.

또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으로 ▲SCC(Surface Color Coating)기술과 리얼패턴 디자인 금형을 활용한 고감성 자동차 암래스트 성형기술 개발(융합기계공학과 최재혁 교수), ▲원목표고, 지역특산 약용자원 발효물질을 복합한 고령층 케어 건강식품 개발(건강기능식품학과 김기만 교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대 김지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대학의 인적, 물질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호응

오치마을공방 입주 강지향 대표 "작업실이자 교육공간 '만족'"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와 광주북구, LH가 청년창업자들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영구임대주택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내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 창업 분야에 따라 ▲각화 창업공간(생활밀착형) ▲두암 스마트타운(ICT) ▲오치마을공방(공예) 등 청년 CEO들에게 별도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전기료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오치공방에서 도자기 체험 공방을 운영하는 '에임세라믹스튜디오'의 강지향(32) 대표. 강 대표에게 오치공방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다. 공예 전공으로 작가 활동을 하는 강 대표는 이 곳이 개인 작업실이자 교육 공간이고 제품 제작실이다.

강 대표는 "오치공방은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제 모든 활동이 가능해 너무 만족한다. 다만 도자기 공예 특성 상 가마가 필요해 도예실은 따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도예 작가로 활동했던 강 대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등 다른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먼저 학교 예술감사 지원 사업에 참여해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오치공방에서는 '원 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 대표는 "현재는 교육 분야가 회사 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박사학위 청구전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하지만 작가 작품이 아닌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았다.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부터 가격대의 타협점도 필요했다.

강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실용보다는 관상용으로 제작했는데 도자기가 한창 유행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경쟁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대중적인 제품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동강대 BI센터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청년상인육성재단 안병수 이사장을 멘토로 매달 1-2회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다. 강 대표는 실용자기로 찾잔 류를 생각했다. 각종 페어나 플리 마켓에 참여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다.

강 대표는 "시장조사를 통해 타깃 층은 연령대 30-40대, 그 중에서 그것을 좋아하고 수집 취미를 가진 주부층을 공략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지역민과 '대안교육 나눔의 장' 열다

학생·교직원 등 600여명 참석 콘퍼런스·동아리공연·체험 등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공통체가 한자리에 모인 제1회 전남 대안교육 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7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남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공통체가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교육 실천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만남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대안교육 어울림 한마당은 곡성 목사동면의 1일 장날과 더불어 열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교사 한마당 '전남대안교육콘퍼런스'와 학생 한마당 '활동 및 전시', 지역민 한마당 '목사동 장날'로 나누어 운영됐다.

교사 한마당에서는 ▲대안교육의 역사와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해외이동학습 '우즈백을 가다' ▲지역적 함양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 등 세 개 주제강연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꾸민 학생 한마당에는 오케스트라·사물놀이·밴드 등 동아리 공연과 체험 부스, 각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 활동 소개 프로그램



지난 17일 곡성 목사동면 들말센터에서 열린 '2023 제1회 전남대안교육 어울림 한마당'에서 김대중 교육감과 학생들이 행사장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램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목사동면 주민들은 목사동의 전통 1일 장날로 꾸며지는 만큼 맛있는 지역 먹거리, 동아리 발표·체험 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어 좋았고, 대안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참 신선하고 즐거

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대안교육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이번 행사가 대안교육과 마을공동체가 상생 발전하는 길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